

원구성·코로나 대응·개혁입법 '칩칩과제'

원 구성·신임 원내대표 김태년 선출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서명탑에 김태년 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그가 코로나 입법·예산지원, 권력기관 개혁 완수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 177석이 되는 '슈퍼여당'을 이끌어야 하며,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구상을 구체화하고 예산·입법을 지원해야 하는 등 과제도 산더미다.

특히 김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4·15 총선 광주·전남 당선인들의 표심이 결집한 것으로 알려져 이 지역 당선인들의 원내 지도부 진입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7일 민주당 원내대표 투표 후 김태년 원내대표는 "안정과 통합의 민주당을 의원과 과 함께 만들겠다. 의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내겠다"면서 "당정정의 역량을 위기 극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경제 위기 극복 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청 내부 토론은 더 치열하게, 도출된 결론은 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당·정·청이 원팀이 돼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경제 위기 대응에 우선적 초점을 맞추면서, 지지 세력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검찰 등 개혁과제 실행에도 당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도 관심이 있다.

코로나 입법·예산 지원·권력기관 개혁 완수 '강한 리더십' 필요 광주·전남 당선인들 표심 집결...원내 지도부 진입 여부 관심

민주당은 올 하반기 가장 중요한 '개혁 적기'라고 보고 사회안전망 마련 등 개혁입법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문 대통령이 천명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예산·입법 지원과 정치의 원내대표의 역할도 중요하다.

원구성 협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야당과 '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의원들을 적재적소 상임위에 배치하는 것도 민주당 원내대표로서는 만만찮은 숙제다.

오는 7월 출범이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입법 문제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문제 역시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이날 취임 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김 원내대표는 이날 말까지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 입법도 해결해야 할 전망이다. 야당과의 본회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n방방 방지법 후속입법,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관리법과 공공의대 설립법,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이 처리도 기다리고 있다. 또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정 수사권 조정법을 처리했으니 경찰개혁법, 국정원법 등 남은 입법도 마무리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앞두고 처장 임명 등 후속 작업도 중요한 숙제다.

광주지역 한 총선 당선인은 "이 지역 당선인들 중 상당수가 순천 출신의 김 원내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고, 경선 과정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초선 비율이 높은 광주·전남지역 당선인들이 김 원내대표 선출에 따라 당내에 연착륙하고 나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태년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김태년, 정성호의원. /연합뉴스

광주·전남 당선인 상임위 배치 관심

광주형일자리·농어업 지원 등 전략적 배정 필요

4·15 총선 당선인 상임위원회 배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형일자리와 농어업 지원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맞는 총선 당선인들의 전략적인 상임위 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전남 18명의 총선 당선인 중 상당수가 이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김태년 원내대표를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등 김 원내대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김 원내대표도 초선 중심의 상임위 배정을 약속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초선 의원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상임위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공약실천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초선 당선인들의 전략적인 상임위 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18명 중 13명이 초선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광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전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형일자리(환경노동위원회) 등의 현안 사업 성공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인 상임위원회 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남지역도 농어업(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외에도 지역 SOC 확충(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위한 상임위 배정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광주·전남도의 예산 확충을 위해서는 이 지역 당선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배정도 필요하고, 이 지역 재선 당선인의 상임위 간사 배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시민당 합당 투표' 오늘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7·8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7일 당일 개시판에는 합당 찬반 양론이 뜨겁게 펼쳐졌다.

합당에 찬성하는 쪽은 총선 과정에서 시민당을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홍보하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만큼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당원은 "총선 때 비례정당으로 시민당을 투표하라고 독려해서 투표하지 않았느냐"며 합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반대하는 쪽은 시민당을 친여권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 국회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남겨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당원은 "교섭단체를 만들어 각각의 당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며 오히려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라"고 권유했다.

민주당은 7일 오전 6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해 합당 결론이 나면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당 결의를 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8월 민주당 전대, 이낙연 도전 '최대 관심'

홍영표·송영길 후보 거론...국회의장 박병석·김진표 2파전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서명탑 경선에서 친문(친문재인) 김태년 의원이 승리하면서 민주당의 '친문색채'가 한층 강화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친문 중에서도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이어질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민주당의 친문 쏠림 현상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8월 예정대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당내 일각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전횡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가 조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최장수 총리인 이 위원장은 친문으로 볼 수 있지만 참여정부 출신 등 '진정 친문'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분당 당시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당에 머무른 뒤, 나중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 개혁·진보세력이 모인 통합민주당에 참여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이 위원장은 손학규계 소속이다.

이 위원장의 등판을 위해 민주당이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보완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차기 당 대표가 대선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총 2년의 임기 가운데 6개월 가량만 채우고 중도 사퇴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 등 대선주자들의 전대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해 이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다른 후보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어 개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전남 순천 출신인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이낙연 위원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이 전남 영광 출신이라는 점에서 원내대표와 당 대표 모두 호남이 장악한다는 '호남 프레임'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 신임 원내대표와 이 위원장의 지역구가 모두 수도권인

라는 점에서 '호남 프레임'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질 경우, 상당한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또 다른 당권 주자로는 친문 핵심으로 20대 국회 3기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4선)이 당 대표 도전을 타진하고 있다. 비문 그룹에서는 5선이 되는 전남 고흥 출신의 송영길 의원과 4선이 되는 우원식 의원, 원외 인사로 되는 김부겸 의원 등이 당권 도전 후보로 거론되는 중이다.

국회의장 후보는 민주당 최다선인 6선이 되는 박병석 의원과 5선이 되는 김진표 의원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다선 중진의 리더십으로 여야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전대에서 친문 그룹의 지원을 받은 바 있으며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엷다는 평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통합당 원내대표 영남 vs 수도권

주호영·권영세 2파전...주호영 우위 속 초·재선 표심 변수

미래통합당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은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권영세(서울 용산) 당선인 간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5선이 되는 주 의원은 3선이 된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을, 4선이 된 권 당선인은 3선이 된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당선인을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6일 후보 등록했다.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이명수(충남 아산갑)·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구하지 못해 이날 출마 의사를 접었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충청권' 대 '수도권+영남권'의 대결 구도가 될 수 있다. 당 일각에선 지역별 구도도 따지면 영

남권(59명·70.2%)이 원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 의원이 경선에서 유리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당내 최대 지분을 차지하는 초·재선(60명) 의원들의 표심 또한 만만치 않은 변수로 꼽힌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8명)·경기(7명)·인천(1명) 등으로 참패한 수도권 민심을 의식, 초·재선 의원들의 표심이 '수도권 원내대표' 쪽으로 기울 경우 서울에서 유일하게 비강남권으로 당선된 권 당선인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후보자 토론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의료시설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 7,913,565,060원 최저가 : 4,431,597,000원(56%)

다세대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무등산이스트리
전용 : 176.4㎡(53.4평) 대지권 : 313.59㎡
감정가 : 559,000,000원 최저가 : 391,300,000원(70%)

다세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트라운하임
전용 : 243.2㎡(73.6평) 대지권 : 622.57㎡(188.3평)
감정가 : 960,000,000원 최저가 : 672,000,000원(70%)

아파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전용 : 125.95(38.1평) 대지권 : 71.37㎡(21.6평)
감정가 : 381,000,000원 최저가 : 266,700,000원(70%)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